



# 사무엘서에 나타난 아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한사무엘(한세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의 영(רוח/루아흐)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제기되는 불만은 구약의 영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들 특히 신약의 영에 비해 매우 드물고 협소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sup>1)</sup> 이러한 지적은 1995년 9월부터

---

1) J. Köberle, "Gottesgeist und Menschengest im Alten Testament", *NKZ* 13 (1902), 321; I. F. Wood, *The Spirit of God in Biblical Literature: A study in the history of religion* (New York: A. C. Armstrong & Son, 1904), 3; J. Hehn, "Zum Problem des Geiste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ZAW* 43 (1925), 210; L. J. Woo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6), 7; M. Dreytza,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c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 und satzsemantische Studie* (Basel/ Gießen: Brunnen Verlag, 1990), 39; R. Koch,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 M.: Peter Lang, 1991), 9; H. Schüngel-Straumann, *Rûa bewegt die Welt: Gottes schöpferische Lebenskraft in der Krisenzeit des Exils* (SBS 151;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92), 7; W.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XVI;

한국 구약학의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구약논단에서도 유효하다. 그 간의 많은 기고문 중에서 구약의 영을 직접 다룬 논문은 이사야의 “아웨 임재의 상징과 영”<sup>2)</sup> 그리고 차준희의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sup>3)</sup> 뿐이다. 또한 선행된 구약의 영 연구도 루아흐(רוּחַ)에 대한 각각의 특별한 이해를 품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루아흐 개념이 발전해 왔던 광범위한 시간의 범위를 참고하지 않고 이루어진 탓에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새로운 연구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루아흐를 좁고 제한된 시공간(예를 들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속에서 또는 어느 특정한 본문들(예를 들면, 이사야, 에스겔, 사사기, 신명기사가 역사서) 속에서 다루는 경향들이 바로 그것이다.<sup>4)</sup> 새로운 추세에도 불구하고

D. I. Block, “Empowered by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in the Historiographic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SBJT* 1 (1997), 42; J. M. Ragsdale, *ruah YHWH, ruah 'elohim: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distinction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Marquette University (2007), 14; D. G. Firth/ P. D. Wegner,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1), 15.

- 2) 이사야, “아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85-198.
- 3)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85-211. 구약의 영(루아흐)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위해서는 차준희,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 (1998), 53. 각주 11을 참조하라. 1998년 이후에 발표된 구약의 영(루아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라: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통권 제262호(2000), 117-145; 이학재, “에스겔 37:1-14에 나타난 루아흐의 수사학적 신학적 해석”, 「성서사랑방」 12 (2000년 여름), 58-73; 강성열,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성령”, 「구약성서의 신앙과 세계」, (서울: 한울출판사, 2001), 88-108; 조명기, “רוּחַ(rûah)의 창조적 활동성을 통해 본 구약의 리더십”, 「유관소 연구」 제12호 (2007년 12월), 189-124;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사사기/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9), 159-179; 김진섭, “성령님의 창조사역에 나타난 지혜”, 「구약논집」 6집 (2010), 79-118; 김혜운, “구약성경의 ‘루아흐’(רוּחַ):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8호 (2011. 겨울), 9-49; 한동구, “카리스마적 지도자, 영의 민주화 및 생명운동: 루아흐(rûah)를 중심으로 한 구약성서의 성령론”, 「역사서 해석과 역사 이해」, (서울: 동연, 2012), 114-135; 안근조, “에스겔 37:1-14에 나타난 영과 땅의 의미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문제”, 「기독교교육정보」 제43집 (2014년 12월), 209-234.
- 4) R. J. B. Sklba, “Until the Spirit from on high is poured out on us (Isa 32:15):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Spirit in the Exile”, *CBQ* 46 (1984), 1-17; H. Schüngel-Strumann, “Ruah (Geistin)”, M. Kassel(ed.), *Feministische Theologie.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Stuttgart: Kreuz, 1988), 59-73; J. Scharbert, “Der ‘Geist’ und die Schriftpropheten”, R. Mosis/A. Deissler(eds.), *Der Weg zum Menschen* (Freiburg: Herder, 1989), 82-97; D. I. Block, “The prophet of the spirit: the use of ruah in the book of Ezekiel”, *JETS* 32 (1989), 27-49; W. Ma, “The Spirit (ruah) of God

고 구약의 루아흐 연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로 예언서 본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논문들 중에는 예언서 본문이 아닌, 역사적인 본문, 즉 신명기사가 역사서에 속하는 본문들 속에서 루아흐를 연구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sup>5)</sup> 이제 필자는 본 연구의 제목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의 두 논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들 연구의 학문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들이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아웨의 영(רוּחַ אֱלֹהִים/루아흐 아웨)과 하나님의 영(רוּחַ יְהוָה/루아흐 엘로힘)에 대한 최근 연구

독일의 구약성서 학자인 바그너(D. Wagner)는 자신의 학위논문 「영과 토라(Geist und Tora)」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타난 루아흐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는 영의 개념을 왕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

---

in Isaiah 1–39”, *AJTh* 3 (1989), 582–596; J. Woodhouse, “The “Spirit” in the book of Ezekiel”, B. G. Webb(ed.), *Spirit of the Living God: Part One* (Homebush West: Lancer, 1991), 1–22; H. Schüngel–Straumann, *Rûah bewegt die Welt: Gottes schöpferische Lebenskraft in der Krisenzeit des Exils* (SBS 151;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92); D. I. Block, “Empowered by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in the Historiographic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SBJT* 1 (1997), 42–61; W. Ma,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H. E. Hosch, “Ruah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JOTT* 14 (2002), 77–125; J. Robson, *Word and spirit in Ezekiel* (JSOT, S 447; New York: T & T Clark, 2006); J. M. Ragsdale, *rûah YHWH, rûah ‘ĕlôhîm: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distinction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2007); L. R. Martin, “Power to Save!?: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the Book of Judges”, *JPT* 16 (2008), 21–50.

5) D. I. Block, “Empowered by the Spirit of God”, 42–61; D. Wagner, *Geist und Tora: Studien zur gödlichen Legitimation und Delegitimation von Herrschaft im Alten Testament anhand der Erzählungen über König Saul*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5); J. M. Ragsdale, *rûah YHWH, rûah ‘ĕlôhîm; Samuel Han, Der “Geist” in den Saul- und Davidgeschichten des 1. Samuelbuches* (Arbeiten zur Bibel und Ihrer Geschichte 5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의 합법화(Legitimation)와 비합법화(Delegitimation)의 지평에서 이해했다. 그는 사무엘서의 루아흐가 사울 왕에 대한 합법화 또는 비합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한편으로는 통치자로 선발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고,<sup>6)</sup> 다른 한편으로는 루아흐가 사울 왕의 폐위와 몰락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삼상 16:14-23). 결과적으로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영의 개념을 자신의 신학적인 개념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바그너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그가 단지 루아흐를 의미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고대의 루아흐 전통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신학적-정치적인 의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가 루아흐와 연결된 하나님의 명칭, 즉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의 교차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후대의 편집에 의한 영향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는 두 신명에 담긴 신학적-정치적 의도에 치중한 나머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루아흐와 관련된 신명 교차의 현상을 연구한 또 한 명의 최근 학자는 렉스데일(J.M. Ragsdale)이다. 그는 신명기 역사서(DtrG) 전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연구가 바그너의 연구와 차이 나는 부분은 분석의 목적이다. 바그너가 사무엘서 편집자의 의도를 조사했다면 렉스데일은 신명기사가의 루아흐 사용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는 전초 작업으로 하나님의 루아흐를 오경,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에서 살피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구약이 하나님의 영을 묘사함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표현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의 강점은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라는 두 용어를 구분했다는 점

6) 참조. D. Wagner, *Geist und Tora*, 389-390.

다. 그는 신명기 역사서 내에서 ‘루아흐 엘로힘’은 오직 야웨에 맞서는 불성실한 사울과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7)</sup> 기존의 연구들이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를 단순히 동의어로서만 취급해 왔던 것과는 달리, 그의 논문은 이 신명들이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도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가 정교하게 교차하는 본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신명기사가의 편집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두 신명의 교차를 본문의 문맥 내에서 설명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구체적인 논의도 생략한 채 후대 신명기사가의 작업으로 소급시킨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필자는 이후의 논의에서 신명 교차의 신학적 경향성을 오직 신명기사가의 편집으로 소급시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대결구도 속에서 이해해 봄으로 렉스데일의 연구 결과를 수정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두 논문이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신명 교차의 경향성을 지적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논문들이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라는 신명 교차 현상을 너무나도 후대의 신학적 편집의 결과로만 이해함으로써, 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의 가능성을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는 점은 이후의 연구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 3. 구약의 루아흐(לַוְיָח) 분포와 사무엘서의 루아흐(לַוְיָח) 분포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웨’에 대한 주석학적 논의에 앞서 사무엘서의 루아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약에서 루아흐

7) 참조. J. M. Ragsdale, *rûah YHWH, rûah 'ēlōhîm*, 163–165.

(רוּחַ)는 389회 등장한다(378번은 히브리어, 11번은 아랍어).<sup>8)</sup> 이 중에서 49개의 본문은 소위 신명기사가 역사서(DtrG)에서 발견된다.<sup>9)</sup> 그리고 49개 중에서 19개의 본문이 사무엘서의 본문이다(삼상 1:15; 10:6, 10; 11:6; 16:13, 14a, 14b, 15, 16, 23a, 23b; 18:10; 19:9, 20, 23; 30:12; 삼하 22:11, 16; 23:2).

먼저 사무엘서에 나타난 루아흐를 용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감성 또는 원기(2회: 삼상 1:15; 30:12)
2. 신현현을 위한 상징으로서의 바람(2회: 삼하 22:11, 16)
3. 신적인 영(15회: 삼상 10:6, 10; 11:6; 16:13, 14a, 14b, 15, 16, 23a, 23b; 18:10; 19:9, 20, 23; 삼하 23:2)

위의 분석에 의하면 총 19번의 루아흐 중에서 78.9%에 해당하는 15번의 루아흐가 ‘신적인 영’ 곧 하나님의 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이는 구약의 영의 연구에서 사무엘서가 매우 의미미한 대상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15개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루아흐가 총 6개의 장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sup>11)</sup> 다음과 같은 4개의 다양한 전승들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

8) 참조, R. Albertz/C. Westermann, Art. רוּחַ rūah Geist,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727; S. Tengström/H. -J. Fabry, Art. רוּחַ, rūah,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II* (Stuttgart: W. Kohlhammer, 1993), 393.

9) 신 2번; 수 2번; 사 10번; 삼상 16번; 삼하 3번; 왕상 11번; 왕하 5번.

10) 삼상 10:6, 10.

11) 삼상 10:11; 16; 18; 19; 삼하 23.

1. 사울의 기름부음(2회: 삼상 9:1-10:16)<sup>12)</sup>
2. 암몬 족속과의 전투(1회: 삼상 11:1-15)<sup>13)</sup>
3. 소위 다윗의 등극기<sup>14)</sup>(11회: 삼상 16:1-삼하 5)<sup>15)</sup>
4. 소위 다윗의 유언(1회: 삼하 23:1-7)<sup>16)</sup>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사무엘에서 루아흐는 주로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대부분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이야기에 집중되고, 특히 다윗의 등극기(Aufstiegsgeschichte Davids)에서 루아흐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루아흐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 초기 왕정과 관련된 본문, 특히 다윗의 등극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걸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을 미리 밝혀두자면 비록 루아흐가 다윗 등극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등극기에서 루아흐는 다윗보다는 사울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울과 관련하여 13회,<sup>17)</sup> 다윗과 관련하여 2회.<sup>18)</sup>

12) 삼상 10:6,10.

13) 삼상 11:6.

14) 다윗 등극기의 시작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다윗의 기름부음 이야기(삼상 16:1-13)가 비록 등극 이야기에서 종종 잘려나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등극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조, H.-U. Nübel, *Davids Aufstieg in der Frühe israelitischer Geschichtsschreibung* (Bonn: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1959), 18-19; F. Mildnerberger, *Die vordeuteronomistische Saul-Davidüberlieferung* (Tübingen: unpublished, 1962), 121; A. Weiser, “Die Legitimation des Königs David: Zur Eigenart und Entstehung der sogen. Geschichte von Davids Aufstieg”, *VT* 16 (1966), 325-326; J. H. Grønbaek, *Die Geschichte vom Aufstieg Davids (1.Sam. 15-2.Sam. 5): Tradition und Komposition* (Copenhagen: Prostant Apud Munksgaard, 1971), 302;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B,OT 8; Lund: CWK Gleerup, 1976), 33-35.

15) 삼상 16:13, 14a, 14b, 15, 16, 23a, 23b; 18:10; 19:9, 20, 23.

16) 삼하 23:2.

17) 삼상 10:6, 10; 11:6; 16:14a, 14b, 15, 16, 23a, 23b; 18:10; 19:9, 20, 23.

18) 삼상 16:13; 삼하 23:2.

#### 4. 사울 이야기에서의 루아흐 아웨(לואח אַוֵּי)와 루아흐 엘로힘(לואח אֱלֹהִים)

사울의 이야기에서 루아흐에 대한 언급은 총 3회 등장한다(삼상 10:6, 10; 11:6). 첫 번째 장면은 사울의 기름부음(삼상 9:1-10:16)이고, 두 번째 장면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삼상 11:1-15)이다. 현재의 본문 상태로는 두 이야기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사울의 기름부음 이야기(삼상 9:10-10:16)가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결된 이야기라면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sup>19)</sup> 비록 지금의 본문 형태가 사울의 기름부음 이야기를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결된 이야기로 보이게 만들지만, 고대 영웅 이야기가 영웅의 성공적인 행위에 대한 보도 없이 단지 전쟁 수행에 대한 요청만으로(삼상 10:7) 종결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구성이다.<sup>20)</sup> 따라서 필자는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보도하고 있는 사무엘상 11장을 사울 이야기의 후반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루아흐를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사울의 기름부음 이야기와 사울의 암몬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가 필자의 가정대로 원래 하나의 이야기였다면 이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루아

- 
- 19) 비교. A. A. Fischer, "Die Saul-Überlieferung im deuteronomistischen Samuelbuch (am Beispiel von I Samuel 9-10)", M. Witte/K. Schmid/D. Prechel/J. C. Gertz(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169; J. M. Miller,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59.
- 20) 비교. A. A. Fischer, "Die Sau-Überlieferung im deuteronomistischen Samuelbuch, 169; D. Edelman, Saul's Rescue of Jabesh-Gilead(1Sam 11:1-11): Sorting Story from History", *ZAW* 96 (1984), 200.

호'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루아호가 언급되는 본문들을 살펴보겠다. 필자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삼상 11:1-15)가 사울의 기름부음 이야기(삼상 9:10-10:16)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1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보통 영웅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영웅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고 수집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수집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6 사울이 이 말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루아호가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역)

성경의 보도에 의하면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온 사실과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מִיְהוָה** **רוּחַ**/루아호 엘로힘)이 강하게 임한다(**נָחַל**/찢라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사울은 자신이 몰고 온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한다. 사울의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소집했던 기드온의 행동(삿 6:34)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모습은 야웨의 영이 임했던 사사기의 사사들과 동일한 모습이다. 따라서 사무엘상 11장의 루아호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 결부되어 있는 사사기의 루아호 전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응집시키

21) S. Tengström/H. -J. Fabry, Art. **רוּחַ**,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II*

는 행동을 통하여 암몬 족속을 격퇴시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는(삿 11:15) 점에서는 사사들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영에 의해 유발된 행동이 왕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울은 사사들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사사들의 경우에는 영의 영향으로 발생한 단발적인 사건이 실질적인 왕권 탄생으로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사울이 한편으로는 사사들의 전통에 서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사들의 전통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통하여 사울의 왕권이 태생부터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루아흐 본문들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의 본문들이다.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6절이다.

야웨의 신이 네 위에 강하게 임할 것이고(נָשָׂא/짤라흐),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자처럼 행동할 것이다(וְהָיִיתָ כְּנָבִיא/웨히트나비타).

너는 변하여 다른(אֲחֵרִי/아헤르)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6 사역)

이 구절은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도중에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후에 사무엘로 밝혀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예언을 확증해 주는 한 징표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문맥 속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짤라흐(נָשָׂא/강립하다)인데 이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영이 임하게 되면 첫째로 사울이 예언자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 그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징표는 사울의 행

(1993), 414.

동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묘사된 사울의 행동은 예언자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사울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는 נָבֵא(나바/예언하다)의 히트파엘형인 נִבְּאָהוּ(웨히트나비타)다. 그런데 사실 이 동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문이 더 이상 사울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히트파엘형이 예언자 무리의 음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울의 경험이 황홀경의 일종일 것으로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다(비교. 삼상 10:5; 왕하 3:15-16).<sup>22)</sup>

두 번째 징표는 사람의 변화됨에 관한 것이다. 사무엘은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글 개역개정에서 사무엘상 10장 6ab절 אַחֵר אִישׁ אֲחֵרָהּ וְנִבְּאָהוּ(웨네흐파크타 레이쉬 아헤르)은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번역되어 사울의 변화됨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필자는 이 구절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אֲחֵר(아헤르/다른) 대신에 אַחֵר(하다쉬/새로운)가 사용되었다면 논란의 여지없이 ‘새롭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아헤르’의 기본 뜻은 ‘새로운’이 아니고, ‘다른’이다.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새롭다’로의 해석은 언어에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사울의 변화됨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번역자의 해석이 가미된 번역이기에 수정되어야 한다. 이 변화됨의 언급이 무엇을

22) 문맥에서는 사울의 행동이 예언자적 행동이라는, 즉 말씀 전달(비교. 왕상 22:8, 18=대하 18:7, 17; 렘 26:20)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נָבֵא의 히트파엘은 ‘예언자처럼 행동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동사의 주어가 예언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동사의 주어가 예언자와 같이 보이는 행동을 취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히트파엘형 동사는 여러 문맥들 속에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겉으로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삼상 21:16; 삼하 13:5-6; 14:2). 따라서 삼상 10:6에서 언급된 사울이 취하게 될 행동(נִבְּאָהוּ)은 외관상 당시 예언자들의 행동으로 알려졌던 황홀경 현상일 것이다. 비교. H. W. Robinson, “The Psychology and Metaphysic of “Thus saith Yahweh””, ZAW 41 (1923), 2는 사울의 행동을 황홀경의 경험 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경험’이라고 보았다.

의미하는가는 현재의 본문 속에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사울의 본질적인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의 영은 이스라엘의 전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예언자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될 것과 인물의 변화됨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아웨리는 신명이 루아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은 이 두 개의 신명이 서로 동의어로서 사용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sup>23)</sup> 그러나 단순하게 동의어로 처리해도 되는지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주로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두 신명의 교차 사용에 대해서는 다윗의 등극기에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사울의 선택과 기쁨부음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루아호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사울과 관련된 오래된 속담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0장 10절이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기 위해 기브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루아호가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고, 사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언자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 (삼상 10:10 사역)

사무엘상 10장 10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과 그 때에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자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언에 덧붙여진 추가된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예언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 그 날

23) F. Mildnerberger, *Die vordeuteronomistische Saul-Davidüberlieferung*, 168.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영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동사는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에서와 동일하게 **חָלַם**(찰라흐/강림하다)이다. 필자는 이 찰라흐(**חָלַם**)가 사울의 영 경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의 영 경험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단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사울의 왕권을 탄생시키는 근거가 되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사울의 영 경험에 있어서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야웨라는 신명에 비해 더 본래적이었을 것으로 본다(삼상 10:10; 11:6; 비교. 삼상 16:15, 16, 23; 18:10; 19:20, 23).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우세하게 사용되는 신명은 엘로힘이기 때문이다.<sup>24)</sup> 따라서 사울의 영 경험은 원래 루아흐 엘로힘과 밀접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אָבַד**의 히트파엘형인 **אָבַדָּה** (와이트나베) 동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울이 예언자로서 예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본문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외관상 예언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의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본문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에 확정지을 수 없다. 영의 작용에 관련하여 사무엘상 10장 6절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예언자와 같은 행동 이외에 사람의 변화됨을 언급하지만,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의 변화됨의 주제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의 변화됨의 주제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됨의 주제가 원래 사울의 영 경험과는 무관한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변화됨의 주제가 오직 야웨의 영에서

24) 삼상 9:1-10:16절에서 야웨의 신명이 반사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Samuel Han, *Der »Geist« in den Saul- und Davidgeschichten des 1. Samuelbuches*, 95, 101-102를 참조하라.

만 발견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울 이야기에 나타난 루아흐는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영 경험을 유발하거나(삼상 11:6),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예언자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삼상 10:6,10), 사울을 다른 존재로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삼상 10:6).

사울의 영 경험이 사울로 하여금 타 부족과의 전쟁에 임하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부분 사사들의 영 경험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울의 영 경험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택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사들의 영 경험과 차별된다. 특히 사사들의 영 경험이 단회적이고 임박한 특정 사건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는 반면, 사울의 영 경험은 임박한 사건과는 별개로, 임박한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선택 받음이 확증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사사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이전 사사들에게 있어서 영 경험은 능력성에 초점이 놓여졌다면, 왕권 도입과 관련된 사울의 영 경험은 능력성과 함께 관계성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음이 인지된다. 즉, 사울은 능력을 부여하는 영 경험을 한 것에 있어서는 이전 사사들의 전통에서 있지만, 이전부터 영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전 사사들의 전통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왕권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측면의 영 이해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다윗의 등극기와 루아흐 아웨(לְרוּחַ אֲוֵי)와 루아흐 엘로힘(לְרוּחַ אֱלֹהִים)

사무엘서에서 발견되는 루아흐 구절 중 4개(삼상 1:15; 10:6, 10; 11:6)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들이 다윗 등극기 본문에 속한다는 사실은 루아흐 연구에서 다윗의 등극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드

러낸다. 또한 다윗 등극기 내에서 루아흐의 용례는 아주 특별한 경향성을 보인다. ‘루아흐 엘로힘’이 한 번도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울은 두 개의 다른 신명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다윗은 항상 ‘루아흐 야웨’와 직접 연결된다.

16장은 내용상으로 1-13절과 14-23절로 나뉘는데, 루아흐는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제어 역할을 한다.<sup>25)</sup> 왜냐하면 다윗의 기름부음의 마지막 부분과 소년 다윗의 궁중 이야기의 첫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인 13절과 14절에서 루아흐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16장에서 등장하는 루아흐의 언급을 살펴보겠다. 다윗의 등극기에서 루아흐가 언급된 첫 번째 구절은 16장 13절이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삼상 16:13 개역개정)

다윗에게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의 영 언급은 이전 사울의 영에 대한 언급과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다윗에게 임한 영은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이 아니라, ‘루아흐 야웨’(רוּחַ יְהוָה)이다.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주로 ‘루아흐 엘로힘’이었다(삼상 10:10; 11:6).<sup>26)</sup> 친사울적인 본문(삼상 9:1-10:16; 11:1-15)에서 야웨는 한 번도 사울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적이

25) 참조. H. J.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8,1; Berlin: Evang. Verlagsanstalt, 1976), 309.

26) 비록 삼상 10장 6절에서 ‘루아흐 야웨’가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사실 이 구절은 본래 사울 이야기의 요소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상 10:6a**ab** אִתָּךְ אִישׁ אֶלֶּיךָ וְנִתְּנָה לְיְהוָה(웨네하프카타 레 이쉬 아헤르)은 “새 사람이 되리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옳다. 필자는 삼상 10: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가 사울 왕의 폐위 이야기(삼상 13:7-15)와 연결되어 사울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듯이 삼상 10:6a**ab**도 악령에 의해 다르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들(삼상 16:14-23; 18:10-11; 19:10-11, 18-24)과 연결되어 사울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친사울적 본문 안에서 사울의 어두움을 부각하는 삼상 10:6a**ab**은 사울 이야기의 원래 내용이 아니다.

없다. 야웨의 긍정적인 영향은 오직 다윗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둘째, 다윗에게 임한 영은 사울에게 임했던 영과는 달리 지속성을 띠고 있다. 사울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만 보도한다. 그 어디에서도 그 영이 머물렀거나, 떠났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다윗 등극기는 ‘루아흐 야웨’(야웨의 영)가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임했다고 언급한다. 사무엘상 16장 13a절 **וַיִּשְׁמַע יְהוָה מִיְהוָה מִיְהוָה**(메하옴 하우 와모라/이날 이후로 계속)은 다윗에게 임한 야웨의 영이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등극기의 저자가 영의 지속성을 언급했다는 말은 영의 떠남의 개념도 계산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야웨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 등극기의 저자는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게 ‘야웨의 영’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다윗 등극기에서 두 번째 루아흐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이다.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웨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개역개정)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첫째, 야웨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 이전 어디에서도 우리는 야웨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이 구절은 야웨의 영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떠났고, 더 이상 야웨는 사울과 함께하신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 언급은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낸다. 야웨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말은 야웨의 영이 이전까지는 사울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뜻하지 않는가?

둘째, 야웨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다윗 등극기

저자는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사울을 괴롭히는 영은 다름 아닌 ‘야웨로부터 나온 악한 영’(הַיָּוֵה הַרָּע מֵאֵת יְהוָה/루아흐 라하 메에트 야웨)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 언급은 이 이후에 다루어지게 될 내용이 사울의 정신적인 이상 현상임을 암시한다. 등극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야웨의 영’이 결코 사울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잠시 등극기의 저자가 왜 그토록 사울과 영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 했는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울이 전혀 영과 관계없는 인물이었다면 다윗의 왕권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등극기 저자는 영이라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등극기 전반에서 영이라는 주제가 여러 곳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삼상 16:13, 14, 15, 16, 23; 18:10; 19:8-10, 18-24) 사울이라는 인물이 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루아흐 엘로힘’(하나님의 영)의 강한 강림이었다(삼상 11:6).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이다(삼상 11:15). 이러한 과정에서 사울과 하나님의 영과의 밀접성은 사울 왕권의 종교적인 합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윗 왕권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원하는 등극기 저자는 사울 왕권의 핵심인 영적 카리스마를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윗의 합법화가 주제인 등극기에서 ‘사울과 영’의 관계를 그토록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의 대부분의 루아흐는 ‘엘로힘’과 연관되어 언급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הַיָּוֵה הַרָּע)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삼상 16:15)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הַקְּרִי מִיְהוָה הַזֶּה)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삼상 16:16)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מִיְהוָה הַזֶּה)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הַקְּרִי הַזֶּה/루아흐 하라아) 그에게서 떠나더라. (삼상 16:23)

여기서도 눈여겨볼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하나님의 영’이 ‘악한’(הַקְּרִי/라아)이라는 형용사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הַקְּרִי(라아/악한)와 연결된 적이 없었다. 특히 사무엘상에서 이러한 연결은 오직 다윗 등극기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다(삼상 18:10; 19:9<sup>27</sup>). 둘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הַקְּרִי(라아/악한)와 연결되지 않아도, 악한 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삼상 16:23a). 셋째, 문맥 속에서 악신(הַקְּרִי הַזֶּה/루아흐 하라아)은 ‘하나님의 영’과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삼상 16:23b).

이렇듯 등극기 저지는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드는 영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

27) MT 삼상 19:9에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이’ (루아흐 아웨 라아/הַקְּרִי מִיְהוָה הַזֶּה)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라고 나온다. 그러나 LXX는 πνεῦμα θεοῦ πονηρὸν 즉, 하나님의 악한 영 (루아흐 엘로힘 라아/הַקְּרִי מִיְהוָה הַזֶּה)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LXX 독본의 손을 들어준다. 왜냐하면 MT에서는 아웨 신명과 ‘הַקְּרִי’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71), 112;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Samuel*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13), 104; R. Koch, *Geist und Messias* (Wien: Herder, 1950), 39; H. J.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357. 이와는 반대로 MT의 본문의 독본을 더 원래적인 본문으로 보는 이도 있다. 참조, H. W. Hertzberg, *Die Samuelbüc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0), 132.

역사했던 그 영이다(삼상 11:6). 다시 말해서 사울의 왕권을 출발하게 만들었던 그 영이 다윗 등극기에서는 사울을 괴롭히는 영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음악에도 쫓겨나는 그러한 영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상 11장을 알고, 사울 왕권의 영적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저자의 의도적인 구성이다. 등극기의 저자는 16장에서 아웨의 영(𐤀𐤓𐤕𐤓𐤕/루아흐 아웨)도 사울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𐤁𐤏𐤓𐤕𐤓𐤕/루아흐 엘로힘)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영적 카리스마의 근원이 아님을 보여주려 한다.

사울의 이전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등극기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본문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𐤁𐤓𐤕𐤓𐤕 𐤁𐤏𐤓𐤕𐤓𐤕/루아흐 엘로힘 라아)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𐤁𐤓𐤕𐤓𐤕)와 이트나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삼상 18:10)

사무엘상 18장 10-11절은 사울이 악령의 영향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는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리고 11장 6절과 그 표현이 일치한다. 이 세 구절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음을 언급할 때에 동일한 동사 𐤁𐤓𐤕𐤓𐤕(좃라흐/임하다)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진다.<sup>28)</sup> 특히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8장 10절 사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

28) 삼상 10:10ba은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삼상 10:10ba에서 전치사 𐤁𐤓𐤕𐤓𐤕은 𐤁𐤓𐤕𐤓𐤕 동사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다른 구절들에서는 𐤁𐤓𐤕𐤓𐤕이 동사 뒤에 온다.

한 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두 구절 모두 נָבֵא(나바/예언하다)의 히트파엘형을 하나님의 영의 작용의 결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일한 영이 작용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현격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단어적인 측면이나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친사울적인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선택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반사울적인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무엘상 16장 14-23절처럼 다윗의 음악적인 치료가 필요한 악한 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 인한 사울의 행동(נָבֵא의 히트파엘형)도 친사울적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증하는 증표이지만, 반사울적인 본문 속에서는 정신적인 이상 증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윗 등극기 저자는 사무엘상 16장 1-13절에서 다윗의 합법화(Legitimation)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로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모든 면에서 다윗의 것이 사울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울 왕권의 최대 강점이었던 ‘하나님의 영’(אֵלֹהִים וְרוּחַ אֱלֹהִים/루아흐 엘로힘)과의 관계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등극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만 악한 영향만을 끼친다. 이러한 경향은 사무엘상 19장 18-2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이처럼 다윗 등극기의 저자가 사울과 영의 관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의 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사울 왕권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입었던 사무엘상 11장의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떠올렸을 것이다. 따라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선임자의 전매특허였을 하나님의 영광의 밀접성 문제를 어떻게 든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울의 최고 강점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밀접성을 최종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다윗 등극기의 저자는 루아흐 아웨(לְרוּחַ אֱוֶה/아웨의 영)와 루아흐 엘로힘(לְרוּחַ אֱלֹהִים/하나님의 영)을 의도적으로 교차 사용했던 것이다.

## 6. 나가는 말

필자는 본 연구에서 기존 논문들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려 하였다. 우선 신명의 교차 현상을 초기 왕정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루아흐 아웨’(לְרוּחַ אֱוֶה)와 ‘루아흐 엘로힘’(לְרוּחַ אֱלֹהִים)을 단순한 동의어로 처리한 기존 연구들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기존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루아흐 아웨’와 ‘루아흐 엘로힘’의 교차 사용이 다윗의 우월함을 강조하려는 등극기 저자의 의도적인 구성이며, 사울 왕권의 영적 기반인 영광의 밀접성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이려 하였다.

본 연구는 루아흐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교차하여 사용되고 있는 영의 표현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을 대항하여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다윗과 추종자들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서 다윗 등극기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장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신명의 교차 사용이 단순히 후대의 신명기사가의 작업으로 소급되기 보다는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가 필요로 했던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미약하나마 본 연구를 통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렸기를 소망해 본다.

## 7. 참고문헌

- 강성열,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성령”, 「구약성서의신앙과세계」(서울: 한들출판사, 2001), 88-108.
-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통권 제262호(2000년 봄), 117-145.
-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사사기/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2009), 159-179.
- \_\_\_\_\_, “성령님의 창조사역에 나타난 지혜”, 「구약논집」 6집 (2010), 79-117.
- 김혜윤, “구약성경의 ‘루아흐’(רוח):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8호 (2011 겨울), 9-49.
- 안근조, “에스겔 37:1-14에 나타난 영과 땅의 의미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문제”, 「기독교교육정보」 제43집 (2014년 12월), 209-234.
- 이사야, “아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85-198.
- 이학재, “에스겔 37:1-14에 나타난 루아흐의 수사학적 신학적 해석”, 「성서사랑방」 12 (2000년 여름), 58-73.
- \_\_\_\_\_,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자, 성령의 사역”, 「성경과신학」 32 (2002), 30-53.
- 조명기, “רוח(ruah)의 창조적 활동성을 통해 본 구약의 리더십”, 「유관순연구」 제12호 (2007년 12월), 189-124.
- 차준희,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 (1998년 9월), 52-83.
- \_\_\_\_\_,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85-211.

한동구, “카리스마적 지도자, 영의 민주화 및 생명운동: 루아흐(rûah)를 중심으로 한 구약성서의 성령론”, 『역사서 해석과 역사 이해』, (서울: 동연, 2012), 114-135.

Albertz, R./Westermann, C., Art. רוּחַ rūah Geist,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Gütersloh: Kohlhammer, 2004), 726-753.

Block, D. I., “Empowered by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in the Historiographic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SBJT* 1 (1997), 42-61.

\_\_\_\_\_, “The prophet of the spirit: the use of רוּחַ in the book of Ezekiel”, *JETS* 32 (1989), 27-49.

Dreytza, M.,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 und satzsemantische Studie* (Basel/Gießen: Brunnen Verlag, 1990),

Driver, S. R., *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Samuel: With an introduction on Hebrew palaeography and the ancient versions and facsimiles of inscription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13).

Edelman, D., Saul’s Rescue of Jabesh-Gilead(1Sam 11:1-11): Sorting Story from History, *ZAW* 96(1984), 195-209.

Firth, G./Wegner, P. D.,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1).

Fischer, A. A., “Die Saul-Überlieferung im deuteronomistischen Samuelbuch (am Beispiel von I Samuel 9-10)”, Witte, M./Schmid, K./Prechel, D./Gertz, J. C.(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 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163-181.
- Grønbæk, J. H., *Die Geschichte vom Aufstieg Davids (1.Sam. 15-2.Sam. 5): Tradition und Komposition* (Copenhagen: Prostant Apud Munksgaard, 1971).
- Han, Samuel, *Der "Geist" in den Saul- und Davidgeschichten des 1. Samuelbuches* (Arbeiten zur Bibel und Ihrer Geschichte 5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 Hehn, J., "Zum Problem des Geiste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ZAW* 43 (1925), 210-225.
- Hertzberg, H. W., *Die Samuelbücher* (ATD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0).
-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 Hosch, H. E., "Ruah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JOTT* 14 (2002), 77-125.
- Kaiser, O., "David und Jonathan: Tradition, Redaktion und Geschichte in I Sam 16-20. Ein Versuch", *ETHL* 66 (1990), 281-296.
- Köberle, J., "Gottesgeist und Menscheng Geist im Alten Testament", *NKZ* 13 (1902), 321-347, 403-427.
- Koch, R.,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 M.: Peter Lang, 1991).
- \_\_\_\_\_, *Geist und Messias: Beitrag zur biblischen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Wien: Herder, 1950).
- Ma, W.,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 Isaiah* (JSOT.S 2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Mettinger, T. N. D.,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B.OT 8; Lund: CWK Gleerup, 1976).
- Mildenberger, F., *Die vordeuteronomistische Saul-Davidüberlieferung* (Tübingen: unpublished, 1962).
- Miller, J. M.,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57-174
- Nübel, H.-U.,  *Davids Aufstieg in der Frühe israelitischer Geschichtsschreibung* (Bonn: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1959).
- Ragsdale, J. M., *rûah YHWH, rûah 'êlôhîm: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distinction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2007).
- Robson, J., *Word and spirit in Ezekiel* (JSOT.S 447; New York: T & T Clark, 2006).
- Robinson, H. W., "The Psychology and Metaphysic of "Thus saith Yahweh"", *ZAW* 41(1923), 1-15.
- Scharbert, J., "Der "Geist" und die Schriftpropheten," R. Mosis/A. Deissler(eds.), *Der Weg zum Menschen* (Freiburg: Herder, 1989), 82-97.
- Schüngel-Straumann, H., "Ruah (Geistin)", Kassel, M.(ed.), *Feministische Theologie.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Stuttgart: Kreuz, 1988), 59-73.
- \_\_\_\_\_, *Rûah bewegt die Welt: Gottes schöpferische Lebenskraft*

- in der Krisenzeit des Exils* (SBS 151;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92).
- Skiba, R. J. B., "Until the Spirit from on high is poured out on us (Isa 32:15):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Spirit in the Exile", *CBQ* 46 (1984), 1-17.
- Stoebe, H. J., *Das erste Buch Samuelis* (KAT 8,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6).
- Stolz, F.,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 Tengström, S./Fabry, H. -J., Art. רוּחַ *rûah*,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II* (Stuttgart: W. Kohlhammer, 1993), 385-425.
- Van Seters, J.,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 Weiser, A., "Die Legitimation des Königs David: Zur Eigenart und Entstehung der sogen. Geschichte von Davids Aufstieg", *VT* 16 (1966), 325-354.
- Wellhausen, J.,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71).
- Wood, I. F., *The Spirit of God in Biblical Literature: A study in the history of religion* (New York: A. C. Armstrong & Son, 1904).
- Wood, L. J.,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6).
- Woodhouse, J., The "Spirit" in the book of Ezekiel, Webb, B. G.(ed.), *Spirit of the Living God: Part One* (Homebush

West: Lancer, 1991), 1-22.

검색어

루아호 아웨

루아호 엘로힘

영

왕권의 합법화

다윗 등극기.

## The Meaning of the Spirit of Yahweh and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Samuel

Samuel Han, Dr. Theol.

Lecture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previous researches on *rûah* (רוּחַ/spirit) in the book of Samuel. Previous studies on *rûah* in the Old Testament have regarded the two different expressions, the Spirit of Yahweh (רוּחַ יְהוָה) and the Spirit of God (אֱלֹהִים רוּחַ), as synonymous. However, this is a misunderstanding due to the fact that the scholars have disregarded out the situation of the early monarchy of Israel.

This paper does not focus on the lexical meaning of *rûah* but rather on the role of the concept *rûah* at a specific time, namely, the early monarchy of Israel. The alternation between the Spirit of Yahweh (רוּחַ יְהוָה) and the Spirit of God (אֱלֹהִים רוּחַ) must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www.kci.go.kr

the rivalry of the two early kingships. David's followers emphasized that the Spirit had departed from King Saul in order to crush the spiritual base of Saul's kingship. And they created the new concept that the Spirit came upon David in order to show the superiority of David's kingship over Saul's.

This study points out a lack in previous interpretations of *rûah* in the book of Samuel and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as an alternativ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alternation between the Spirit of Yahweh and the Spirit of God is political propaganda used to justify David's kingship. This new interpretation is possible i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early monarchy of Israel is considered.

## Keywords

*rûah*

the Spirit in the Old Testament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Yahweh

the Spirit in the Book of Samuel

- 투고일: 2016년 7월 14일
- 심사일: 2016년 8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8일

[www.kci.go.kr](http://www.kci.go.kr)